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기연\* · 홍상옥\*\*

### 요 약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U광역시에 Y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312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는 부-자녀간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요인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부모 모두 개방적 의사소통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나, 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를 차이 검증한 결과,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인 경우에는, 성별과 가족구성, 월평균소득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경우 주거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그 횟수가 아주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폭력절도형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권위반항형 행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검증을 한 결과, 성별, 월평균소득, 부의 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낮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부모-자녀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청소년 문제행동

논문 투고일 : 2014. 4. 23.      최종심사일 : 2014. 5. 13      게재확정일 : 2014. 5. 20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가족복지상담 전공 석사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ong, Sang Ook, Yeungnam University, 280 Deahak-Ro, Gyeongsan, Gyeongbuk 712-749, Republic of Korea. E-mail : sanguk@ynu.ac.kr

## I. 서론

청소년기는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해야 하는데서 오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심리적 갈등을 체험하며 그로 인해 인격형성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기이다(김계순, 2006). 이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이시기의 청소년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불안정과 불균형으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변화하는 사회적 조건에 적절한 새로운 습관, 태도, 행동양식을 형성해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전 세대의 청년들에 비해 더 많은 요구와 기대, 그리고 유혹과 위협에 처해 있다(정옥분, 2004). 급변하는 현대에 접어들어서 산업화에 따른 개인의 역할의 다양화·전문화가 가족의 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자녀관계에 많은 갈등과 문제를 유발시켰고,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유발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노정화, 2000).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우울, 자살, 약물사용 및 성 문제, 폭행, 살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행동은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질적으로 더욱 흉폭화 되고 있다(양돈규, 1997).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 위기가 될 뿐 아니라,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남현미, 1999). 특히 청소년을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일차적인 원인이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 가족은 인간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으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다(우신애, 2009).

가정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해 협동할 수 있다. 가족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행복하고 원만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매일의 생활에서 가족들 상호간의 감정을 유지시켜 주고 가족의 서로의 활동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사회에서는 서로의 정보 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혜숙, 2009). 의사소통이란 인간 상호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하여 서로의 생각, 의견 또는 감정과 의미를 교환하

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상호 반항적과정이다 (Galvin & Brommel, 1986; Gross, Crandall, & Knoll, 1980).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의 기본이며, 가장 포괄적인 상호작용이다. 부모-자녀 간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보호와 양육을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을 하게 된다. 자녀 역시 의견과 요구를 위해 부모에게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다른 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기이면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더불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김명우, 2003; 최인경, 2001).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 판단, 감정, 행복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한 인간의 발달적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 정신건강의 중추가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발달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요인이다(김영숙, 1997).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형성해나가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의 부적응에서 오는 많은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그 종류가 다양하여 학교폭력, 가출, 성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단순히 청소년층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한혜숙, 2009). 더욱이 최근에는 영양상태가 좋아지면서 신체적으로 조숙한 발달로 인하여 사춘기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가정문제, 학교문제로 확대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날로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 요인들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는 가설을 세우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을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communication)이란 어원을 찾아보면 라틴어인 ‘나누다’, ‘전달하다’, ‘참여하다’, ‘관여·공유하다’라는 등의 ‘communis’에 어원을 두고 있다. 일대일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로 부터 언어적 비언어적인 수단으로 감정, 태도, 사실이나 정보, 생각, 그리고 행위 등을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 상호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최초로 기본적인 언어적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또 자녀의 의사표현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반응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이나 행동발달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의사소통이 부정적, 폐쇄적이고 원활하지 못할 경우 자녀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함을 수준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하영희, 2004).

가족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상징적 거래 과정’ 즉 ‘의미들을 창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보고, 만일 의미를 상호 간에 공유하지 못할 때는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공감하면서 경청한다면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 증진 될 수 있다고 하였다(Galvin, Brommel; 1982 재인용).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는 이 시기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율

성을 획득하고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는 시기라는 것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가 억압을 받지 않고, 자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사소통 유형이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와 개인의 생각이나 관심 등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전달방식이라 할 수 있다(이진용, 1990).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원들이 분명한 의사소통망을 성립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상호의사소통을 통하여 긍정적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반면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나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며(김양숙, 1995),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행동할 수 있는 기술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은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보나 의도를 알림으로서 어떤 문제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해소 시켜주고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자녀간의 단결을 도모해 준다고 했고, Koffman은 Kibbutz 가족연구에서 부모-자녀간의 수준 높은 대화가 자녀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학습효과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윤혜경,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유형은 가족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대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Barnes와 Olson(1982)의 의사소통유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 2.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의 자기체계, 성격 및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개념으로서 여러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종종 자아개념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자아개념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자아개념은 판단적(judgemental)인 개념이 아니라 일련의 기술적(descriptive)인 개념으로 자신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포함한다(김미영, 2000). Rosenberg(1978)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므로 여러 측면에서 잘 적응을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 불안, 낮은 성취수준을 보이고 선택한 분야에서 성공하

기 위한 필수적 재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성공이나 더 좋은 직업을 추구하려 하지 않고 사회적 고립감을 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박지은, 2010제인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Bienvenu, M. & McClain, S.(1970)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들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자녀에 대한 수용이 부족하고 진실성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표현이 풍부하며, 학업에서나 사회활동에서 성공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토론에서 자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과파적인 면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영숙, 김정옥, 2002).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 균등하게 포함되어 있고, 청소년기에 발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Coopersmith(1967)의 이론적 구성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여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발달은 주위 여러 사람들과의 중요한 타인들과의 형성되고 발달된다고 보았다.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있는 대우와 성공적인 경험에 의해 가치있게 평가될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열등하게 평가할 때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

Rosenberg(1978)는 자아존중감이 어린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장진주, 2009).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자아존중감의 형성과 변화, 발달이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다른 발달단계보다도 특히 청소년기가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시점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아울러 자아존중감에 따른 문제들이 가정은 물론 학교, 사회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족의 의사소통은 가족구성원들의 자아존중감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릴 때부터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Bienvenu와 McClain(1970)은 14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말을 경청하고 표현에서 자유롭다고 보고하고

있다. 자녀가 설정된 한계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오고 갈 때, 가족활동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하며,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유능하고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부모의 자녀가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일 때 표현이 자유롭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국길숙, 이미숙, 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국내연구들을 보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정선미(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났고, 문제형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부모-자녀간의 상호관계에서 형성되며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을 구분했을 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의미있게 살펴보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3. 청소년의 문제행동

나날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과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반응으로써 좌절과 갈등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문제행동 혹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신의정, 1995 재인용).

문제행동이란 인간발달 단계인 청소년기에 놓인 청소년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규범과 가치에 위배된 반사회적 일탈 및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 타인보다는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자살 약물남용, 유해 미디어 중독, 유해시설 접촉 등과 같은 도피적, 자해적 행동으로서 비사회적 행동을 포함한다(김진화의, 2002).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법률적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 만큼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청소년 문제행동 영역에 있어 법률적 문제행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주변 환경, 상황에 따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으로 나타내며,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정서적 혼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나타내며, 약물 사용이나 반사회적 행동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낸다(Lyons, 2004).

부모-자녀간의 유대는 부모-자녀간에 애정, 관심, 지도, 개방적 의사소통과 대화 등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Hirschi(1969)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단절, 고명감 결여, 부모 감독의 방심, 성인 역할 모델의 부재 등이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모-자녀간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또래관계의 질을 낮추고 이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켰다(김주연, 2009). 또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고(김경화, 1989), 이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규범을 위반하려는 경향은 낮아지며 동시에 문제행동도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노정화, 2002).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문적인 관점이나 학자마다 그 의견이 달리고 있다. 대표적인 분류체계에서 정신의학적 분류체계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DSM-IV이다. DSM-IV 분류체계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의 체계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류방식이다. 한미현(1996)은 문제행동 유형에서,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행동은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행동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화현상과 밖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내면적인 문제행동을 모두 포함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최상숙(1992)은 청소년 문제행동을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 별로 나누어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가정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은 형제간 폭력, 부모에 대한 폭력, 도박, 가출, 부모에 대한 반항 등이며, 학교생활 관련 문제행동은 무단결석, 조퇴, 불량 서클 가입 등이고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행동은 자살 시도, 흥기 소지, 본드 흡입, 패싸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문제행동의 유형은 보는 관점과 규정에 따라 그 종류 및 범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문제행동유형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발달과 향상을 저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청소년의 가족 안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권정연,2005). 이와 같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때, 특히 부모-자녀 간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청소년들은 발달적 정체감과 그에 따르는 정신적 안정감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게 되어 건강한 인격형성에 장애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 비행과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한 요인으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에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전반에 적응력이 높고 (백경숙, 권용신, 2004),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등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따라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easoner와 Dusa(1991)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성공을 해 노력을 하기 보다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데 전전공공하고, 반항, 부정, 혹은 보복, 교사나 윗사람의 권위무시, 거짓말, 타인비방, 무단결석, 알콜 의존을 통한 도피 등의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Rosenberg (1989) 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다(소미강, 2008). 국내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비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 비행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최윤경, 2002), 낮은 자존감이라고 해서 반드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노현숙, 2002).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행동 및 사회적 적응에까지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내면적 문제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우영, 2006). 이처럼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은 자아존중감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대체로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중학생의 문제행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U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1~3학년에 재학하는 남녀 총 350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50부 중에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38부를 제외한 총 312부를 연구자료로서 최종분석처리 하였다.

#### 2. 연구도구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측정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PAC)중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Adolescent Form)를 약간의 수정을 통해 사용하였고, 문제행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혜숙(2009)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문항은 부-자녀간, 모-자녀간의 각각 개방적 의사소통정도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는 2가지의 하위척도를 각각 20문항씩 구성하였다.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부-자녀간은 .65, 모-자

녀간은 .68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Coopersmith(1967)의 자아존중감 검사지(Self-Esteem Inventory)를 신종순(1990)이 번역,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허구문항을 제외한 총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순으로 점수화하였다. 하위 변인은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자아존중감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91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 문제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혜숙(2009)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던 설문지를 바탕으로 수정 없이 사용하였다. 문제행동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총체적 유희풍속형 행동 척도에 관한 척도 8문항, 권위반항형 행동 13문항, 폭력 절도형 행동 8문항, 도피형 행동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전혀 없다 1점에서 7번 이상을 5점으로 하여 5점 Likert식의 평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 계수)는 .72로 나타났다.

## 3. 조사절차

본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 1일에서 10월 30일에 걸쳐 U광역시에 위치한 중학교에서 시행 및 수집되었다. 설문지 배부는 직접 중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설문지를 현장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총 350부를 배부하였고, 연구에 쓸 수 없는 38부를 제외한 총 312부가 실제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검증, 일원 배치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남(N,%)	여(N,%)	전체(N,%)
성별	-	148(47.4)	164(52.6)	312(100.0)
연령	13세	19(12.8)	33(20.1)	52(16.7)
	14세	114(77.0)	102(62.2)	216(69.2)
	15세 이상	15(10.1)	29(17.7)	44(14.1)
학년	1학년	4(2.7)	6(3.7)	10(3.2)
	2학년	133(89.9)	130(79.3)	263(84.3)
	3학년	11(7.4)	28(17.1)	39(12.5)
가족 구성	부모, 나	105(70.9)	130(79.3)	235(75.3)
	조부모, 부모, 나, 그외 가족	25(16.9)	22(13.4)	47(15.1)
	한부모, 조부모, 나, 기타	18(12.2)	12(7.3)	30(9.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2(14.9)	10(6.1)	32(10.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3(22.3)	58(35.4)	91(29.2)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2(35.1)	67(40.9)	119(38.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16.2)	19(11.6)	43(13.8)
	500만원 이상	17(11.5)	10(6.1)	27(8.7)
주거 형태	아파트	76(51.4)	76(46.3)	152(48.9)
	단독, 연립주택	64(43.2)	75(46.0)	139(44.7)
	기타	8(5.4)	12(7.3)	20(6.4)
부 직업	기능, 농축산어업, 사무, 서비스 등	76(51.4)	66(40.2)	142(45.5)
	자영업	10(6.8)	15(9.1)	25(8.0)
	전문직연구직	2(1.4)	4(2.4)	6(1.9)
	주부기타	60(40.5)	79(48.2)	139(44.6)
모 직업	기능, 농축산어업, 사무, 서비스 등	75(51.0)	66(40.2)	141(45.3)
	자영업	10(6.8)	15(9.1)	25(8.0)
	전문직연구직	2(1.4)	4(2.4)	6(1.9)
	주부기타	60(40.8)	79(48.2)	139(44.7)
부 학력	중졸 이하	5(3.4)	8(5.0)	13(4.2)
	고졸	81(55.1)	86(53.4)	167(54.2)
	전문대졸 이상	61(41.5)	67(41.6)	128(41.6)
모 학력	중졸 이하	6(4.1)	9(5.5)	15(4.8)
	고졸	88(59.9)	102(62.6)	190(61.3)
	전문대졸 이상	53(36.1)	52(31.9)	105(33.9)
총 합계		148(100.0)	164(100.0)	312(100.0)

\*\*\*p<.001, \*\*p<.01, \*p<.05

## 2.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표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N=311)

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	
		M	SD
부와의 의사소통	부 개방적 의사소통	3.09	.83
	부 역기능적 의사소통	2.66	.62
모와의 의사소통	모 개방적 의사소통	3.54	.82
	모 역기능적 의사소통	2.58	.61
부와의 의사소통(전체)		2.88	.40
모와의 의사소통(전체)		3.06	.41

조사대상자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위 요인 중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5점 Likert 척도로 아주 높게 나타나 3.54로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대한 차이 검증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월평균소득 500만원이상과 부직업의 전문연구직, 모직업의 전문연구직에서 5점 Likert 척도에서 3.06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별에서 남학생이 2.99로 나타나,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보면, 주거형태에서 기타가 3.23으로 가장 높았으며, 월평균소득이 200만원미만일 때 3.19로 나타났다. 차이검증을 살펴보면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경우, 성별(p<.001), 가족구성(p<.01), 월평균소득(p<.05)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경우 주거형태(p<.05)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변인	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			
	N	M(SD)	t/F	N	M(SD)	t/F	
성별	남	146	2.99(.40)	4.74***	147	3.09(.47)	1.02
	여	164	2.78(.37)		164	3.04(.34)	
연령	13세	51	2.82(.38)	1.12	52	3.03(.46)	.29
	14세	215	2.90(.38)		215	3.07(.38)	
	15세 이상	44	2.84(.51)		44	3.04(.48)	
학년	1학년	10	2.87(.30)	.94	10	3.00(.24)	.47
	2학년	261	2.89(.39)		262	3.07(.41)	
	3학년	39	2.79(.51)		39	3.01(.46)	
가족 구성	부모, 나	234	2.89(.38)	3.76**	235	3.06(.37)	.65
	조부모, 나 그외 가족	47	2.89(.37)		47	3.05(.37)	
	한부모, 조부모, 나, 기타	29	2.76(.56)		29	2.81(.56)	
월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1	2.86(.58)	3.09*	32	3.19(.52)	1.70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1	.79(.41)		90	3.00(.4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8	2.87(.33)		119	3.05(.35)	
	400만원 이상~500만 원미만	43	2.97(.37)		43	3.06(.32)	
	500만원 이상	27	3.06(.38)		27	3.15(.38)	
주거 형태	아파트	152	2.91(.38)	1.08	152	3.08(.38)	2.12*
	단독, 연립주택	137	2.91(.41)		138	3.01(.44)	

	기타	20	2.75(.49)		20	3.23(.44)	
부 직업	기능,농축산어업,사무,서비스등	141	2.88(.43)	.52	141	3.10(.39)	1.17
	자영업	25	2.88(.37)		25	3.06(.25)	
	전문연구직	6	3.06(.45)		6	3.03(.45)	
	주부,기타	138	2.86(.38)		139	3.02(.45)	
모 직업	기능,농축산어업,사무,서비스등	140	2.88(.43)	.52	141	3.10(.39)	1.17
	자영업	25	2.88(.37)		25	3.06(.25)	
	전문,연구직	6	3.06(.45)		6	3.03(.45)	
	주부,기타	138	2.86(.38)		139	3.02(.45)	
부 학력	중졸이하	13	2.95(.35)	1.97	12	3.11(.48)	1.88
	고졸	166	2.84(.42)		167	3.02(.42)	
	전문대졸이상	128	2.92(.38)		128	3.11(.38)	
모 학력	중졸이하	15	2.94(.41)	.50	15	3.09(.57)	.72
	고졸	188	2.86(.42)		190	3.04(.42)	
	전문대졸이상	105	2.89(.37)		105	3.10(.36)	

\*\*\*p<.001, \*\*p<.01, \*p<.05

### 3. 청소년이 인지하는 자아존중감

#### 1) 자아존중감 수준

<표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N=312)

변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M	SD
자아존중감	3.23	.46
하위요인		
일반적 자아존중감	3.23	.46
사회적 자아존중감	3.36	.55
가정적 자아존중감	3.36	.65
학교적 자아존중감	3.10	.55
자아존중감 (전체)	3.25	.44

자아존중감 전체는 5점 Likert척도에서 3.25로 보통 이상 수준을 보였으며 각각 5점 Likert 척도에서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3.36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10으로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 3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학교적 자아존중감은 가정·사회적

자아존중감보다 낮게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p < .05$ )에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

### 1)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수준

<표 5>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인지수준 (N=312)

변인	문제행동		
	M	SD	
문제행동 하위요인	유혹풍속형 행동	1.58	.49
	권위반항형 행동	1.22	.34
	폭력절도형 행동	1.72	.55
	도피형 행동	1.64	.71
문제행동 (전체)	1.49	.40	

청소년의 문제행동 전체를 살펴보면, 5점 Likert척도에서 1.49로 아주 낮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폭력, 절도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폭력절도형 행동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1.72로 가장 높은 반면, 권위반항형 행동은 1.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에 대한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p < .01$ ), 월평균소득( $p < .05$ ), 부의 학력(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가 문제행동 수준이 높았으며, 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내용구성은 부모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전체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부모별 개방적 의사소통 수준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 1) 부모-자녀간의 하위요인별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표 6> 부모-자녀간의 하위요인별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종속변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β(S.E)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20(3.63)***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19(-3.42)**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18(3.34)**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29(-5.45)***
	회귀상수	3.488
	R <sup>2</sup>	.365
	Durbin-Watson	1.835
	F	43.777**

\*\*\*p<.001, \*\*p<.01, \*p<.05

<표 6>에 의하면 하위요인별 의사소통 수준의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β=.20),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β=-.19),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β=.18)에 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β=-.29)에는 부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전체 β(S.E)	유혹풍속형 행동 β(S.E)	권위반항형 행동 β(S.E)	폭력절도형 행동 β(S.E)	도피형 행동 β(S.E)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	-.01(-.19)	.05(.28)	-.03(-.42)	-.06(-.96)	-.05(-.76)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18(2.77)**	.22(3.31)**	.14(2.13)*	.12(1.87)*	.08(1.25)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	.00(.04)	-.05(-.78)	.03(.45)	.06(.85)	-.00(-.06)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13(1.97)*	.13(2.09)*	.05(.80)	.12(1.88)*	.13(2.04)*
회귀상수	.986	.0853	.936	1.139	1.126
R <sup>2</sup>	.070	.088	.031	.048	.042
Durbin-Watson	1.673	1.424	1.633	1.924	1.884
F	5.722***	7.327***	2.412*	3.860	3.362*

\*\*\*p<.001, \*\*p<.01, \*p<.05

<표 7>는 살펴보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전체설명력은 약 7%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β=.18)과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β=.13)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때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혹풍속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변인은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 때 유혹풍속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반항형 행동에는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변인이, 폭력절도형 행동에는 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변인이 도피형 행동에는

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상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긍정적이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 종속변인	전체 β(S.E)	유혹풍속형 행동 β(S.E)	권위반항형 행동 β(S.E)	폭력절도형 행동 β(S.E)	도피형 행동 β(S.E)
자아존중감	-.22(-3.89)***	-.25(-4.51)***	-.13(-2.35)*	-.166(-2.95)*	-.18(-3.20)**
회귀상수	2.130	2.500	1.557	2.405	2.588
R <sup>2</sup>	.216	.062	.018	.027	.032
Durbin-Watson	1.710	1.438	1.683	1.900	1.881
F	15.100***	20.369***	5.527	8.687**	10.256**

\*\*\*p<.001, \*\*p<.01, \*p<.05

전체설명력은 약 2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유형별 하위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향상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정일(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많은 것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결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것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문제에 따른 논의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은 부와의 의사소통의 평균과 5점 Likert척도에서 평균 3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모와의 의사소통은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5점 Likert척도에서 평균 3점보다 높은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은주(2002)의 연구에서 청소년은 어머니와 개방형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해 차이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인 경우 성별과 가족구성, 월평균소득에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경우 주거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최인경(2001)에 의하면 성별은 부모-청소년자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영숙, 김정옥(2002)은 부-자녀간 폐쇄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가정형편이 어려울 때 부-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 의사소통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도는 5점 Likert척도에서 3.25로 평균 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아존중감과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각각 3.36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학교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은 3.1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에서 많은 생활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의 현실을 생각할 때 학교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현숙(2002)은 특히 성적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 및 성적관련에서 자아존중감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특히 일선학교 현장에서 성적수준이 낮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균형적이고 올바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차이 검증한 결과, 성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박지연(2008)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별에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문제행동 수준은 5점 Likert척도에서 1.49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들은 폭력, 절도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횟수는 적음을 알 수 있다.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폭력절도형 행동의 평균값이 5점 만점에 1.72로 가장 높은 반면, 권위반항형 행동은 1.22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차이 검증은 한 결과 성별, 월평균소득, 부 학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혜숙(2009)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넷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각각의 수준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 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데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이 평상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을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모교육프로그램개발로 부모들에게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방법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각각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이면서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상시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가정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 등의 개발도 확대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VI.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은 부-자녀간보다 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많

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특히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개발로 부-자녀간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 부-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하위요인 중 특히 학교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취도 등에 의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제공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가정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촉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경상남도의 U광역시의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표집대상을 더 다양하고 폭 넓게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길숙·이미숙(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생활과학 연구논집**, 23(1), 89-107.
- 김경화(198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순(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우(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0). 집단치료가 아동의 우울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숙(1995).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2). 청소년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2009). 부모의 양육행동, 또래관계의 질 및 청소년의 외로움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화외10명(2002). **청소년 문제행동론**. 서울 학지사.
- 김현숙(1999).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구축.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정연(2005).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및 정서상태와 청소년 문제행동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정화(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 아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숙(2002). 중학생의 자아 존중감과 문제행동과의 관련성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연(2008). 자아 존중감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와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소미강(200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의정(1995). 중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및 성별이 중학생의 갈등표출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신애(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또래갈등, 우울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갈등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발달심리학 석사학위논문.
- 윤혜경(1990).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133-159.
- 이우영(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의사소통 및 가족 규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용(1990).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진주(2009). 부모-자녀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선미(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건양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숙(1992).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영동지역 고교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2002).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희(2004).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4(4), 29-40.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숙(2009).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북외국어대학교 목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s, H., & Olson, D. H. (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flex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ienvenu, M. I., & McClain, S. (1970).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344-34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Galvin, K. M., & Brommel, B. J. (1980).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Scott, Foreman and Co.
- Gross, I. N.,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California Press.

- Lyons, J. B. (2004). *Family Systems,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and Loneliness : A Test of Mediating and Moderating Models.*: New York University Press.
- Olson, D. H., Portner, J., and Bell, R. (1982). FACES II. In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science*. MN: University of Minnesota.

Abstract

## A Study about the Affects of the Behavior Problems of the Adolescents on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 and Self-Esteem of the Child

Lee, Gi-Yeon\* · Hong, Sang-Ook\*\*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children and self esteem on the problematic behavior of juveniles.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as for the degree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ren was average 2.88 in 5 point Likert scale, a little lower than normality, and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was average 3.06, a little higher than normality.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by sub-factors was investigated. Open communication in both parents showed level higher than normality, but open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was higher. Differenc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about the degree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between father and children showed a difference in gender, family composi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and communica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showed a difference in type of residence.

Secondly, the degree of juvenile self-esteem was average 3.25 in 5 point Likert scale, a little higher than normality. Out of sub-factors, mean value of social self-esteem and family self-esteem was as high as 3.36 respectively. The degree of self-esteem recognized by juvenile in school was average 3.10, lower than that recognized at home or society.

Thirdly, the juvenile problematic behavior was average 1.49 in 5 point Likert scale, very low, and the number that juveniles brought about problematic behavior like violence and theft was very few. Out of sub-factors of problematic behavior, violence and theft behavior was average 1.72, the highest, while authority resistance behavior was 1.22, the lowest. Differenc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about the degree of juvenile problematic behavior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difference in gender, average monthly income and academic background of father.

Lastly,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self esteem on the problematic behavior of juveniles was investigated. The higher the self-esteem of juvenile was, the lower the juvenile problematic behavior was. By sub-factor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of father, social self-esteem and family self-esteem of juvenile had an effect on the problematic behavior. That is, closed and negativ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d a high effect on juvenile problematic behavior. On the other hand, high family self-esteem had a low effect on juvenile problematic behavior.

**Key Words** : parents-children communication, self esteem, problematic behavior of juveniles.

---

\* M.A.,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ersity